

전남 동부권

“귀양살이 죄인 나로도 지나지 말라” ... 절경에 낫 잃어 늑장 도착 일쑤여서

“크게 다친 의병장 기바윗골 오니 멀쩡” ... 용흥사 일대 산세 뛰어나 자연치유

고흥 농특산물 스토리텔링 입힌다

#1= 고흥군 영남면에 자리한 용흥사 인근 '기바윗골'로 불리는 곳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는 의병장과 얽힌 전설이 전해진다.
#2= '다도해의 숨은 진주'라고 불리는 나로도에는 귀양을 당한 사람들의 슬픈 역사가 숨어있다.

이후 의병대장은 다시 의병을 조직해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2= '다도해의 숨은 진주'라고 불리는 나로도에는 귀양을 당한 사람들의 슬픈 역사가 숨어있다.

고흥군이 지역의 문화·관광, 농·수산물 등 부존자원을 총체적으로 발굴해 이를 '스토리텔링'화했다.
군은 제2기 신흥력 사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여행 작가를 투입해 문화관광해설사, 농촌관광연구회, 한국 사진작가협회 고흥군지부, 지역향토문화연구원 등 발굴조사팀을 구성해 지역 구석구석 답사를 실시했다.

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덧입혔다.
이를 통해 군은 지역의 부존자원을 상품화해 새로운 가치를 높인 감성 마케팅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박병중 군수는 "지역 농·수·특산물과 문화, 관광 등 부존자원을 전국 최초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류성길 기재부차관 광양방문 '이순신대교' 현장 살펴

기획재정부 류성길 차관이 광양 '이순신 대교' 4공구 현장을 전격 방문, 시공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기 착공 등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차 기본 예절 익히기 순으로 진행됐다.

보성 참시랑모임(회장 박근희)은 최근 여수 울촌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례(茶禮)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차 이론 수업과 기본예절 익히기, 다례(보성군 제공)

여수중고中, 명문사학으로 우뚝

기술경진·과학·수학경시 대회서 잇단 수상
교직원들 한마음 우수 인재 키우기 큰 성과

여수 중고등학교(교장 김석린)가 최근 굵직한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지역인재 배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여수 중고중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남도교육청 주관의 기술경진대회에서 김성호(2학년)군이 금상, 김중성(3학년)군이 은상을 수상하며 5연패를 기록했다.

학경시대회(지도교사 고영구)에서 남기현(3학년)·안용현(1학년)학생이 금상, 강건(3학년)군이 은상을 수상했다.
'제43회 전국 신인 중·고 복싱선수권 대회'에서 정현수(2학년)군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고, 이대현(3학년), 김지환(2학년)군이 각각 1·2위를 기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문자 연락과 상시 폭자 설문조사, 1분기(3개월)마다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학교폭력을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종고중은 20년전부터 여수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전람회 '종고 미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 학산중학교와 미술교류전을 11년째 계속해 영·호남의 화합을 이끌고 있다.

새얼굴 산업·국제항만도시로 도약시킬 것

윤인후 광양시 부시장



"풍부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에 맞춰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일 취임한 윤인후(56) 광양시 부시장은 "광양은 남동권 중심도시이자 산업·국제항만의 도시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직원 상호간 조직을 융화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무안 출신인 윤 부시장은 목포고와 호남대 법학과·전남대 대학원(행정학과)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5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후 전남도 기획관, 전남도 감사관, 경제정책과장, 경제통상과장, 도시사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박람회 올인”

여수시 간부공무원 휴가반납

여수시청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으로 다가오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여름휴가를 반납했다.
여수시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최근 김충석 시장과 정병재 부시장이 여름휴가를 반납한 데 이어 국·과장과 읍·면·동장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0여명 전원이 20일 휴가반납 대열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 북

전주 한옥마을의 힘!

상반기에 204만명 찾아
전주 관광 도시 이끌어

올해 상반기에 전주시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관광 아이콘으로 떠오른 한옥마을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 말까지 전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한 423만2000명에 달했다.

한 204만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한옥마을은 2008년 상반기 43만명에 그쳤으나 2009년 상반기 80만명, 2010년 상반기 187만명으로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며 '관광 도시' 전주를 이끌고 있다.
이어 창포와 연꽃 공원으로 유명한 덕진공원이 44만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동물원 43만명,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한 423만2000명에 달했다.

올여름 피서 순창으로 오세요

섬진강 자락 마실숙박단지 내달 1일 개장
펜션·오토캠핑장 등 휴양 편의시설 갖춰

순창군 장군목 섬진강 자락에 자리잡은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가 다음달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섬진강 마실휴양숙박단지는 군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14억·군비 14억원을 들여 조성한 섬진강 시골길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적성면 석산리에 3동의 펜션과 18개의 야영장, 부대시설 등을 지난 6월 완공했다.

이 있는 관리동 1동과 펜션 49m(14평)형 2동, 61m(18평)형 1동이 있으며, 오토캠핑장 24m형 12개와 16m형 6개의 야영장이 있다.
또 야영객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과 샤워실, 취사장이 있으며,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온수시설을 갖춰 캠핑객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순창군 장군목 섬진강 자락에 자리잡은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단지'가 다음달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물론 바로 주차가 가능한 오토캠핑장으로서 캠핑객의 높은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숙박단지 바로 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 물놀이도 가능하다.
휴게실에는 섬진강 생태학습 자료를 전시하고, 두개의 다목적실은 소규모 세미나 및 교육, 영화상영이 가능해 이용객들의 화합의 장이 될 것이며, 50여대의 넓은 주차 공간도 편리한 점으로 꼽히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곳 숙박단지에서부터 2.4km에 펼쳐진 테마산책로와, 산책로가 끝나는 자락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강변 소공원과 현수교(연장 107m·폭 2.4m)와 어우러진 장군목의 경치는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되찾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브리핑

전주 전통문화연수원 중학생 대상 연수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은 시내 거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인 8월 4~5일, 9~10일 2회에 걸쳐 전주 한옥마을에서 '청소년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단군신화 고신도에서 삼국통일의 화랑정신까지 ▲고려의 불교에서 조선의 성리학으로의 전환 ▲조선의 성리학이

학을 이끈 퇴계와 율곡 ▲시대의 변화 단계와 다산의 실학사상' 등 총 4강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수원의 대표 프로그램인 ▲선비들의 만남(사상견례) ▲선비들의 활쏘기(향사례)를 체험할 수 있다.
문의 (063-281-5042)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익산시, 입찰·낙찰 계약 등 청렴 계약제 실시

익산시는 입찰이나 낙찰,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해 업체와 금품 등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는 '청렴 계약제'를 실시한다.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입찰과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고 부정당 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간다. 또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부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 깨끗한 계약행정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남원시, '10% 소득향상' 강소농 실천 결의대회

남원시는 지난 19일 이백 문화체육센터에서 남원시 농촌지도자연합회(회장 소장호)와 생활개선연합회(회장 임옥자) 회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소농 전략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 소득

향상을 목표로 영농현장에서 땀 흘리며 활동하는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날 임대농기계 50종을 전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설명회도 가졌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 발전 '내장호 출렁다리' 등 5개 시책 선정

정읍시가 시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신규시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내실있는 시정 구현과 내년도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을 위해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신규시책 발굴 경진대회 및 전문가 초청 신규시책 토론회를 거쳐 5개의 우수시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시책은 ▲아시아 최대 내장호 출렁다리 설치 ▲입암면 대흥리 천연염색 직물단지 복원 및 관광화 ▲황토현 전적지내 동학수련원 시설 ▲생태공원내 미로공원 조성 ▲정

읍만의 독특한 생화학 특화거리 조성 등 5개이다.
이전 선정된 우수시책은 총223건의 발굴시책 가운데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엄선했다.
내장산과 연계한 '아시아 최대 내장호 출렁다리 설치'사업과 관련, 신원식 전북도청 정책개발담당관은 "내장산이라는 정읍 상징에 대한 제안자의 선택과 집중이 돋보인 시책이다"고 평가하고 "노력여하에 따라 전역 국비 확보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美공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착륙료 21% 인상 요구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 여부는 착륙료(활주로 사용료) 인상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항은 미군비행장 안에 있기 때문에 여객기가 활주로를 사용할 때마다 착륙료를 내야 한다.
미공군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국제선이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20% 이상의 착륙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문제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신규과제로 정식 채택해

SOFA 합동위원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한·미 실무협의를 구성했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미군측 대표로 구성된 한·미 실무협의회는 1992년 채택된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실무협의회는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면서 착륙료 인상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20일 전북도는 설명했다. 현재 파운드 당 1.7달러인 착륙료를 2.11달러로 21% 가량 올리는 인상이란 잠정 합의된 상태라고

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착륙료 인상이 합의돼 10월을 전후로 합의각서가 개정되면 내년 초에는 국제선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상을 적용하면 군산공항의 국제선 착륙료는 김포나 제주, 제주공항보다는 낮고 대구나 광주, 청주, 무안, 양양, 원주공항보다 3%가량 높다. 이에 따라 31만 2천여 원이던 여객기(B737-900, 75t 기준) 한 대의 착륙료는 38만 7천여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연남뉴스

고창 검정보리로 만든 '보리만두' 내달 출시

고창 검정보리로 만든 '보리만두'가 다음달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역농업 특성화(웰빙 잡곡) 사업 일환으로 후원하고 있는 보리전문가 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청맥

(주)에서 이색 '보리만두'를 개발했다.
지난 18일 서울에서 열린 시식회에는 주부 소비자단체와 유통업체 관계자, 농업인 등이 참여해 좋은 평가를 내렸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